

(주)큐엔텍코리아 환경담당장병국 주임



마지막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중순 환경관리인으로는 신참 격인 (주)큐엔텍코리아의 장병국 주임을 '이달에 만난 환경인'으로 만났다.

'비전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많은 환경선배들 중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는 그는 요즘 몇십년 후의 자화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편집자 주)

" 환경비전 새롭게 만들터 "

92 학번인 장병국 주임은 지난해 이 회사 큐엔텍코리아에 입사했다. 폐유정제 업체에서 약 1년간을 근무한 것이 전부였던 그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70, 80대의 경쟁력을 뚫은 것은 물론 30여 군데 이력서를 제출한 것의 결과였다.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등 환경과 관련된 학과 졸업생들 대부분이 환경기사자격증을 따는 만큼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입사의 기회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의 말대로 환경자격증은 이제 넘친다. 하나의 자격증으로는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물론 취업의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방지시설업체,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곳이 있지만 환경을 전공하면서 가졌던 푸른 미래는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장병국 주임은 "환경관련 직종이 어두운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시기상조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젊은 환경인이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 다른 직종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는 그. 한창 환경에 대한 비전이 크게 대두되던 때라 대기·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폐유정제 업체에서 근무하고 나름대로 정제기술을 쌓은 뒤 옮긴 큐엔텍코리아는 장병국 주임의 희망의 터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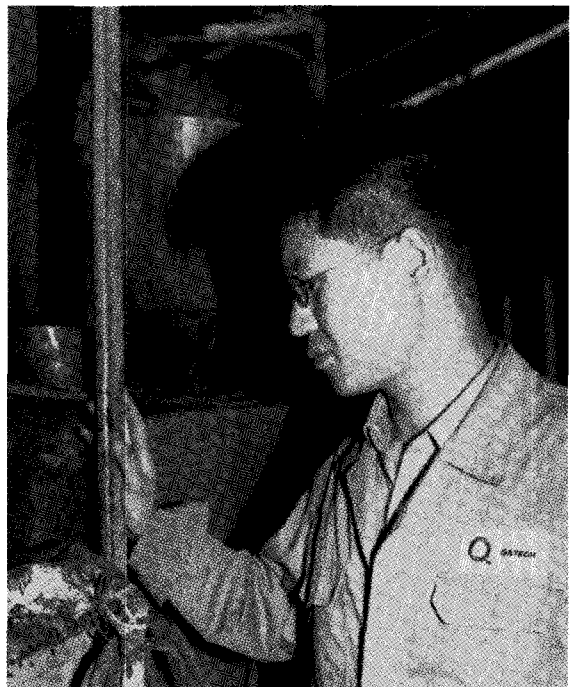
큐엔텍코리아는 화학물리학적 처리 시설을 갖춘 전자부품 제조회사로 컴퓨터 주변기기, 위성수신기기, 박막액정표시 모니터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자부품의 하나인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한다. 1981년 1월 우진전자로 출발해 20여년간 업계의 선두역할을 하며 꾸준히 성장을 해 1988년에는 상장, 지난해 5월 주식회사 큐엔텍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고, 현재 부천에 본사를 두고 남동공단에 제2공장을 가지고 있다.

일일 폐수처리 300톤, 500톤으로 각각 수질 3종 사업장이다.

"타 제조사보다 폐수의 오염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며,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자들의 환경마인드가 높아 지금은 완벽한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며 "입사 초창기 일주일에 한 두차례 생산라인에서 탱크 메이킹업시 COD 및 노르말핵산, 동의 함량이 높아 처리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위해 집수조와 배관, 펌프를 설치하여 조금씩 이송, 처리함으로써 부하를 줄여 해결했습니다." 이때를 그는 가장 힘들었다고 기억 한다.

실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쉬운 일이였을테지만 신입 관리인에게는 어려운 문제였다.

"환경관리 체계화의 부족으로 직원이 교체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론화, 체계화 시켜 경험과 이론이 조화를 이룰 때 처리효율은 물론 비용절감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



과가 있을 것 입니다."라는 그.

맞는 말이다. 이제까지 환경관리는 주먹구구식 경험 자에게 의존해 왔다. 그렇다고 경험을 모두 이론화 체계화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자료화 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토대를 만들어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 환경관리 초심자들이 만들어가야 할 길이다.

입력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환경관리 노이우

"끊임없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저희 회사 환경관리의 노하우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품의서 하나를 제출해도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열린 경영진이 있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그는 전문 환경기술인으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실무경험을 위해 끝까지 이 길을 고집할 것이라 다.

어떤 일이든 3년안에 바꾸지 못하면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가 만들어 가는 인생은 지금 환경 관리인의 모습은 아니다. 환경으로 인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일로 승부를 걸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역할 모델을 열

심히 찾고 있단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무경험이 중요한 만큼 마지막 회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에 충실하며, 경험을 쌓을 것이란다.

아직도 생산제일주의를 고치기에는 벅차다는 그는 각 공정상 변경이 있을 때 통보가 없다면, 분리수거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면 할 때는 수고스럽기만 하다.

"각자의 업무중에 환경에 대한 비중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환경관리가 최우선이지만 말예요." 웃음을 머금은 그는 단계적으로 고쳐나 가야 할 숙제라고 한다.

대부분 수출하는 제품의 특성상 환경관련 인증이 무역의 장애로 대두되는 만큼 ISO 14000 등의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전오염방지가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환경지식이 있을 때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국제적인 사례를 경험으로 국내 환경의식을 높여 나가야 하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무경험과 이론, 외국어라고 판단하고 현재 바쁜 시간을 내어 하루한 두시간씩 공부를 한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좌우명처럼.

정직한 양심과 성실

'어떤 환경선배로 남고 싶습니까?'라는 필자의 질문에 정직한 양심을 가진 환경의 파수꾼으로 남고 싶단다.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맑은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사내 환경관리가 생산성 향상 방안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관리가 쉬워집니다."고 말하며 실제 올 상반기에는 약품의 일률적인 투입을 배제하고 폐수의 성상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 지난해 동기대비 10% 이상 비용절감을 가져왔다고 전한다.

"늘 배우고 깨닫는 자세와 더불어 어떤 선배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본받아야 할 훌륭한 선배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환경관리인 선배들에게 던지는 화두다.

관리인연합회 통해 비전 만들어야

갓 입사했을 때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관리인협의회에 활발한 정보교류가 절실하다고 한다.

"관리인들의 실정을 실정을 이해하는 곳은 환경부도 아니고, 환경관리공단도 아니며, 보전협회도 아닙니다. 오로지 관리인협의회만이 아는 만큼 이들을 위한 많은 일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가슴에 와 닿는 말이

다.

경험부족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차원에서 정보교류의 장 일환으로 교육과 토론,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행착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기업에서의 위상강화도 실현될 것이라 한다.

경기서부협의회에서 홍보를 담당하면서 관리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읽고 있다는 그는 요즘 공드럼 처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협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차분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회사 일을 비롯해 협의회 일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는 그는 능력을 축적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는다. 특히 환경에 대한 희망이 많이 희석된 지금 무엇보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꿈이 필요하다. 분명하게 미래를 그리고는 그와 함께 환경의 희망을 좀더 높게 설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합회 홈페이지(www.kemf.or.kr)이용 하세요.

환경관리인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교류와
기술상담, 사이버장터, 법규, 신기술, 구인·구직 등
꼭 필요한 자료만 엄선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 필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